



2009년 단체협약 체결.. 10차례 협상 3개월만에 타결

검진비.취재 교통비 인상, 휴가 이행 강화, 단독주재 주거비 지원 확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는 1월29일 사측과 건강검진 비용 5만원 일괄 인상과 취재.업무 교통비 7만5천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29일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1차 단체교섭 본회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0차례 사측과 실무협상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열린 제3차 대의원대회에서 잠정합의안을 추인받았다.

최종 타결된 단협 내용을 보면, 보상휴일과 관련해 회사는 매달 대상자와 이행실적을 게시하고, 미실시 조합원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무휴가 소진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는 분기별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조합원들이 반기에 최소한 3일 이상 사용토록 노력하는 동시에 미실시 조합원의 소속 부서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노사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조 주선으로 회사가 강북삼성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

기로 했다. 건강 검진비도 5만원 일괄 인상하고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40세 이상 배우자 검진시 배우자나 부모 중 1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취재.업무 교통비를 7만5천원 인상하고 부별 회의비도 1인당 1만원씩 올렸다.

지방 단독주재 주거비 지원을 위해 회사 지원금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리면서 연 3% 이자를 무이자로 변경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1천만원은 지원기한을 사실

상 없었다.(기존 3년→3년 단위 갱신 최장 12년 거치)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증식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감안해 기존 무이자에서 1%의 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일직에 이은 숙직자 오전 휴식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단 부서장과 해당 조합원이 양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경영기획실장 명의로 계도내용을 게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직원들의 자기계발 지원 확대 차원에서 연 30만원인 강습비를 40만원으로 인상하고 회사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했으며, 자비연수와 대학원 진학 등을 사유로 하는 휴직 신청이 있을 경우 단협에 있는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 출산시 유급 휴가 일수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기로 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최근 노동관련법 개정에 따라 '천임자의 처우' 등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부칙에 '보충협약 체결' 항목을 신설해 차기 노조 집행부와 사측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2009년도 단협 노조 요구안과 타결내용>

항 목	노 조 요 구 안	타 결 내 용
보상휴일	불가피하게 보상 휴일을 쓰지 못할 경우 금전 보상 선택권 부여	매달 보상휴일 대상자.이행실적 게시, 미실시 조합원의 소속 부서장 사유서 제출(회사-노조측 전달)
의무휴가	금전 보상 일수 1일 확대, 분기별 미이행 부서장 공개, 분기별 휴가 이행을 자료 제출	분기별 휴가사용을 권장, 반기에 최소한 3일이상 사용토록 노력하며, 미실시 조합원의 소속 부서장 공개
건강검진 사후관리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사후 조치'에 대해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회사와 강북삼성병원간 MOU 추진
건강 검진 범위.비용	40세 이상의 배우자나 부모를 둔 경우 격년으로 한명을 선택해 검진을 실시, 주요 기본 검진 항목 추가	검진비 일괄 5만원 인상 40세 이상 배우자가 있을 경우 격년으로 배우자나 부모 중 1명을 선택 검진
취재.업무 교통비.회의비	취재교통비와 대외업무 추진비를 50% 올리고, 부별 회의비를 4만원으로 인상	취재 및 업무교통비 7만5천원 인상 부별회의비 1만원 인상
단독주재 주거비	전세의 경우 보증금 전액 및 이자를 회사가 부담하고 월세의 경우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세 전액을 회사가 지원	회사 지원금 1천만원 → 1천500만원 회사 지원금에 대한 이자(3%) → 무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기간(3년) 최장 12년으로 연장, 1% 유상대부
일직 이은 숙직자 휴식	'오전 휴식'의 철저 이행 보장, "단 부서장과 해당 조합원이 양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의 삭제	단서조항 삭제, 별도 경영기획실장 명의로 계도 내용 게시
자기계발비	자기계발을 위한 강습비를 연 60만원으로 상향 조정, 자비 해외 연수(유학 포함)와 대학원 진학 관련된 지원을 규정대로 이행	10만원 인상, 사후관리 강화 자비 연수시 단협 규정 준수
출산휴가	출산휴가일 수를 3일로 조정	3일 유급휴가 처리

2009년도 단체교섭 일지

- △2009.10.29 2009년 단체교섭 노사 상견례
- △2009.11.10 2009년 단체교섭 1차 실무협상
- △2009.11.12 " 2차 "
- △2009.11.19 " 3차 "
- △2009.11.25 " 4차 "
- △2009.12.8 " 5차 "
- △2009.12.10 " 6차 "
- △2009.12.14 " 7차 "
- △2009.12.24 " 8차 "
- △2010.1.14 " 9차 "
- △2010.1.18 " 10차 "(잠정합의)
- △2010.1.28 대의원대회 추인
- △2010.1.29 단체협약 체결

대의원대회, 단협 잠정합의안 추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1월 28일 연합뉴스 본사 6층 교육장에서 제 3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2009년도 단체협약 노사 잠정합의안을 추인받았다.

대의원들은 이날 재적 38명 가운데 23명이 참석해 단체교섭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참석 대의원의 82.6%(19명)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노조 규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추인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또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련법 개정 내용, 고 조계창조합원 1주기 추모사업, 노조 공정보도위원회와 지배구조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대의원들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유급근로 시간면제(타임오프), 내년 7월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동관련법 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의원들은 또 연봉사원 노조가입 문제를 비롯해 향후 노조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올해의 참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노동관련법 개정 내용 요약〉

△노조 전임자 임금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6개월 유예(2010년 7월1일부터 금지)
- 타임오프 도입:교섭.협약,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활동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는 일한 것으로 간주
-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4월 이전 구성
- 타임오프 항목은 노사 추천 각 5인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5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노사 갈등으로 결정못하면 공익위원이 결정

△복수 노조

- 복수노조 허용 1년6개월 유예(2011년 7월1일부터 허용)
- 사업장 노조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 동의시 자율
- 교섭대표노조 결정 자율 → 과반수 노조로 단일화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 실패시 노동위원회 결정
- 조합이 전체 조합원 10% 이상인 경우에만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가능
-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으면 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아 별도 교섭가능

'최장수' 정광룡 조합원 정년퇴직

"정년을 맞아 22년 조합원 생활을 마칩니다."

1988년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창립된 이래 올해 1월까지 꼬박 22년간 조합원으로 생활한 정광룡 부장대우(출판부)가 1월31일 정년 퇴직했다.

이로써 정 조합원은 연합뉴스 노조 사상 '최장수' 조합원으로 기록됐다.

정 조합원은 1981년 5월 연합통신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뒤 줄곧 출판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노조 창립 첫 해 노조에 가입해 조합원으로 정년을 맞았다.

정 조합원은 "노조가 처음 만들어질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입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사원들 복지나 처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해 노조에 가입했다"고 노조 가입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노조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남 앞에 나서진 않았지만 투표나 각종 노조 행사에는 꼭 참여해 왔다"고 덧붙였다.

30년 회사 생활을 마감하고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는 정 조합원은 후배들에게 "모든 조합원들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노조일에 참여하면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승호 노조위원장장은 1월29일 저녁 출판부의 '정광룡 선배 환송식'에 참석, 정 조합원에게 "노조 사상 가장 오랫동안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노조를 지켜주신 정말 고마운 선배"라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노조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도서 경매 '반값 책방' 인기

노조가 음료 자판기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운영하고 있는 '반값 책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www.newsunion.co.kr)를 통해 '읽을 만한 책'을 경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반값 책방에는 사원 50~100명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릴 것 없이 연합뉴스 사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참여층도 평사원에서 차장급과 부장급으로 넓어지고 있다.

노조는 이런 호응을 고려해 올해 1월부터는 경매에 내놓는 책수를 10권에서 20권으로 대폭 늘려 참여자들이 좀 더 쉽게 낙찰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0~12월에는 연합뉴스의 '베스트 셀러' 기사에 따라 경매 도서를 선정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오늘의 책'을 참고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반값 책방을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주문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달라"면서 "도서 선정이나 경매 운영 방식 등에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조, 3월4일 차기 임원 선거

노조는 차기(제23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임원 선거를 3월4일 치르기로 했다.

노조는 2월22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선거를 공고할 예정이며, 같은 달 22~25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3월4일 차기 임원이 선출되면 같은달 15일 노조 창립기념식 겸 노조 집행부 이취임식이 열린다. 다음은 차기 임원 선거 세부 일정이다.

- 2.22(월)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공고 임원선거 공고 선거인명부 확정
- 2.22(월)~25(목) : 후보 등록
- 2.26(금) : 입후보 공고 부재자투표 공고
- 2.26(금) : 지방 취재본부 투표용지 이메일 발송
- 3. 2(화)~3(수) : 부재자 투표
- 3. 4(목) : 투표 마감(오후 7시) 직후 개표.당선자 공고
- 3.15(월) : 노조 창립기념식 겸 이취임식